

강은하-안녕하세요?

자녀의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진로 교육 시간.  
진행에 저는 강은하입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대성-네,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에서  
이렇게 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대성입니다.

강은하-오늘 강의는  
유명인들의 방 사진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진을 좀  
비교해서 보면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안도 다다오

네, 정말 이름만 알아도  
팬이 정말 많은 이분들인데

책상 정리는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니네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대성-제가 이분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책상을 보니까 어느 정도 성향이  
조금 짐작되기는 해요.

먼저 우리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으니 정신이 사납지 않냐고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아인슈타인이

"어지러운 책상이 어지러운  
정신을 말하는 것이라면,

빈 책상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잖아요.

강은하-정말 그분답네요.

이대성-그렇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꽤 차 들어있다고 그래서  
연구하는 아인슈타인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화된 방 공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은하-사실 회사에서는 일의  
능률을 올리는 공간이 바로 책상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험 보기 전에  
괜히 책상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또는 새해에 새롭게  
성적을 올려보겠다

자녀들이 이런 다짐을 하는 곳이  
또 책상이기도 한데요.

방이라는 공간이 사실 책상이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사실 주인의 스타일,  
첫째는 첫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이런 자기의 취향들이  
좀 있고요.

방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좀 깔끔한 성향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직업적인  
특성이 보여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진로를 배워보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을 테마로 한  
아이템을 다루는 것은 분명히

진로 지도와도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좋은 인테리어  
오늘 좀 이런 거 배우는 걸까요?

이대성-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학창시절 내 방은

어땠었나?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방은 어떻게  
꾸며져 있나 뭐 이런 것들이죠.

강은하-사실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방을 혼자 쓰기 시작했는데요.

첫째이다 보니까 방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주신 것도 있고

제 방이 딱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서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내가 되자'

이런 명언을 그 당시에  
막 써서

이대성-훌륭합니다.

강은하-붙였었던 중학생  
강은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책상 하나 있었고  
침대 있었고 또 피아노가 있는

그런 단출한 공간이  
제 방이었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이대성-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우리 학생 연령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의 방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진로 명언이 담겨있는

액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진행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명한 명사들이 남긴 그런 말씀이

붙어있었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큰 동기 요소가 저는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강은하-어제 보다 오늘  
제가 더 나은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제 진로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로 명언 외에 방에 꾸며야  
될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대성-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자녀의 방을 하나씩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공간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놓인 게 없어요.

침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책장이 놓여지게 됩니다.

물론 컴퓨터가 있고요.  
좋아하는 책도 있습니다.

강은하-벽에 교복도 좀 걸려있는  
것 같고 딱 전형적인 학생 방이네요.

이대성-그렇죠. 하지만  
진로 결정을 도와주는 방으로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은하-네, 지금 보기에는  
평범한데

진로를 잘 결정하도록 돕는  
방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

선생님께 한번 말씀 잘  
귀담아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네, 한 4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로 명언  
액자를 놓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

아이들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성공했던 인물들의 사진을  
여러 장 액자처럼

걸어두는 것 정말  
추천하고 싶고요.

세 번째 책장에 따로 구역을 정해서  
아니면 별도의 책장을 구매를 해서

진로 관련 자료들을  
보관해 놓는 것.

예를 들어서 진로 노트에서부터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항상 자녀가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비치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계획서와  
진로 사명서인데요.

자녀와 함께 작성을  
한번 해보고요.

내용의 완성도를 떠나서  
관련된 내용을 액자로

이렇게 조금 멋있게 걸어서  
자녀의 방에 배치를 해놓는 것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은하-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잘 마련이 되면

이제 방에 하나씩 배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죠.

먼저 책상 위에 명언이 적힌  
작은 액자를 놓아주고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 우선  
스톱 하면

명언은 저는 한 가지를 놓고  
적어놨었거든요.

여러 개를 놓고 보는 게  
좋을까요?

하나의 명언을 계속 보는 게  
좋을까요?

이대성-아주 적절한  
질문이고요.

진로와 관련된 명언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놓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하나만 골라 봐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다음은 성공한  
인물의 사진을 걸어두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방은 예를 들어서  
요리사나 음식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유명한 셰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을  
캡처해서 걸어두는 것

이런 것들도 참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책장에 진로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이신  
아나운서와 같은 직업을 꿈꾸는

학생의 진로 같으면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죠.

서점에 가도 있고 아니면  
기타 자료를 상당히 많이

구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책장에

그대로 준비해 두시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로 계획서와 사명서는  
꾸준히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님들이 쓰신 것을  
그대로 액자에 걸어두시면

아주 간편하게 자녀의 방을  
꾸밀 수 있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강은하-명언이나 사진이나 자료는  
잘 알 수 있겠는데요.

진로 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대성-그렇습니다. 제가 작성  
사례를 한번 준비했어요.

같이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진로 계획서를 작성한 학생은  
예를 들어서 식품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요리에 관계된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리고 간편식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강은하-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세밀하고 자세하게 적을수록

진로를 잘 꾸려갈 수 있겠다,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고민의 깊이도 깊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진로 달성을 위한 준비 계획도  
진로 계획서로 구체적으로 적어왔고

박물관이나 박람회나  
다양한 체험들도

말씀하신 요리에 대한 지식이나  
본인만의 레시피

이런 것들도 한번 창의적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대성-맞습니다.

강은하-멘토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셰프를  
만나보겠다 이런 것도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과 함께

자녀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성-맞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진로 계획서를

함께 작성을 한번 해 주시면서  
자녀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소통해 나가는 것  
정말 지혜롭고 감각적인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은하-이렇게 자녀의  
방을 진로에 맞게

잘 채워준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대성-최초는 부모님께서  
구성 준비를 해 준 후에

자녀가 스스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은하-자녀의 방이 딱 마련이  
됐으니까 잘 되겠네요.

자녀 방만 바꾸면 되겠죠?

이대성-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부모의 공간도 변화가  
조금 필요합니다.

강은하-부모 방은 왜  
바뀌야 될까요?

이대성-부모님이 평소에 직업과  
일을 대하는 태도를

자녀는 꾸준히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꾸준히  
의사소통을 진행하면서

아빠는, 엄마는 직업을 일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다는 것을

부모님의 방의 구성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것이죠.

강은하-자녀 방하고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부모의 방에는 어떤 요소를  
챙기면 좋을까요?

이대성-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면  
좋은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눈에 띄는 것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

자녀의 사진을 일단  
놓아두는 거예요.

들어오면 부모 방에  
내 사진이 있으니까

뭔가 존중받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이 들겠죠.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원하는 진로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사진을 통해서 볼 때마다 자녀가  
뭔가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부모가 직업적 성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또  
역량 개발을 했던 수료증

그리고 성장하면서 받으셨던 상장,  
트로피 이런 것들을 전시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작성했던  
진로 사명서를 부모님 입장에서

작성해서 보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생활 수칙 같은 것을

부모 입장에서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시는 거죠.

나의 진로 사명서,  
나의 직업 생활 수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두면

아하, 자녀가 부모님들도 저렇게  
직업 생활을 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의 반성문을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강은하-반성문이요?

이대성-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예를 들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모님께서 반성문을 받아서  
쓰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보관해서 부모 방에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자녀 입장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은하-말씀을 꼭  
들어보니까

정말 다 필요한 요소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적용시킬까 궁금해져서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성-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공간에

제가 활용했던 사례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강은하-선생님 집이  
공개되는 건가요?

이대성-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교육 자료로써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강은하-네,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진 보고 있는데요.  
와,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이대성-네, 여기는 저희 집에  
조그마한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렸던 그림을 제가 액자로

걸어둔 것이 중간에  
있는 사진이고요.

이런 사진들이 저희 집에 가면  
한 7개 정도가

액자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성장해서  
미대에 입시를 준비하고

미술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중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자료가

한 130개 정도 되는 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은하-정말 많네요.

이대성-네,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성장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노트를 보관한 자료가

한 130권 정도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강은하-꽃 그림도 보이는데요.  
이거는 미대 입시와 관련이 있겠죠?

이대성-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된 책,  
아니면 크레파스, 미술 도구 등을

자기가 아꼈던 것을 현재까지  
하나도 버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리고 난 다음에 뿌듯하게  
생각했던 그림을

버리지 않고 액자로 구성을 해서  
방에 이렇게 구성한 모습이

바로 지금 시청자들께서 보고 계신  
그런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강은하-애정을 가진 공간이 되고  
그게 또 진로로 연결이 되니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역할에 부모이신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면서

많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이대성-네, 맞아요.

강은하-그러면 여기서 부모의  
공간도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공개하시는 겁니까?

이대성-네, 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학습을 위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하-네,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붙여놓으신 게  
보이는데 혹시 반성문인가요?

이대성-그렇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사진이

아이가 반성문을 써야 될 상황에  
반성문을 받아서

우리 부모님 방 한쪽에  
이렇게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역으로 저에게  
반성문을 요구할 때가 있죠.

강은하-아, 그렇습니까?

이대성-네, 해서 일부  
어떻게 아빠 해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한다, 아니다를  
그 옆에 반성문을 써서

별도로 제가 걸어놓은 것이  
좌측의 그림이고요.

우측은 제가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제 자기 개발이나  
역량 개발 그리고 성과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공간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강은하-언뜻 보기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대성-그렇습니다. 뭐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걸 해놓으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빠 이거는 뭐예요?"  
"엄마 이거는 뭐예요?" 하면

이런 성과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나 엄마는 직업을  
또는 일을 대할 때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일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진로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은하-이 사진들은 뭘까요?

이대성-2개의 사진이 지금 동일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좌측은 제가 직업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23년간 거의 매일 이력서를  
썼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중요했던 것들을  
회사에 제공한 것 외에

제가 스스로 작성해서 집에  
가지고 와서 보관했던 것들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보여줄 때

"아빠는 매일매일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왔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녀의 입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한 일과들이

상당히 직업 세계에서  
중요하구나를 스스로 일깨워주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측에 나의 생활수칙은  
아빠라는 한 직업인의 입장에서

내가 직업과 일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약 26페이지를 제가 수기로

직접 작성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평소에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도 같이 와서  
"아빠 이게 무슨 얘기에요?"

이런 소통을 하면서  
직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진로 교육을 하는데 아주 적절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은하-대화의 소재가 고갈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성-아, 네 그렇습니다.

강은하-보여주신 것처럼  
자녀의 방에, 또 부모의 방에

이렇게 진로와 아주 밀접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정말 필요한 이유를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대성-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공간은 정말  
자녀 진로 지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핵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크고, 작고

"저희들은 집이 작은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꾸준하게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이라도 성의를 들이면

반드시 자녀에게  
조그마한 변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충분히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은하-가정에서도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공간에도 이 관심을  
변화로 이끌어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진로를 찾고 또 계획을 세우는  
일을 자녀가 적극적으로

신나서 나서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대성-맞습니다. 진로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사회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자발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로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께서 이런  
조그마한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더욱더 자녀,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은하-화면 건너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벌써 자녀 방문을 열어볼 생각부터  
먼저 하실 것 같은데요.

변화와 배치를 또  
다르게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진로 교육에  
힘쓰시는

그런 나비 효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대성-감사합니다.